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한국 핸드볼 “베이징 가자”



◀ 베이징올림픽을 향한 여자핸드볼 대표선수 허순영이 지난 2004년 아테네올림픽서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

女 내일·男 30일...일본과 亞예선 재경기

“베이징이 보인다. 남매가 손잡고 함께 가자!”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게 된 베이징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 재경기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9일 오후 7시 20분 도쿄 요요기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일본과 베이징행 티켓 한 장을 놓고 단판 승부를 벌인다. 하루 늦은 30일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는 김태훈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남자 대표팀이 역시 일본과 한판 대결을 펼친다.

여자대표팀은 27일 낮 12시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숙소인 도쿄 시내 호텔에서 옮겨 짐을 풀었다. 대표팀은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비디오편역을 하고 29일 경기시간에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 요요기 체육관에서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훈련을 실시했다. 남자는 28일 오전에 일본행 비행기

에 오른다.

이번 재경기는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주도한 중동 심판의 편파관정으로 일찍이 작년 8월 여자 예선(카자흐스탄)과 9월 남자 예선(일본) 결과를 국제핸드볼연맹(IHF)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IHF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 예선 재경기를 결정했다.

남녀 모두 한국과 일본의 단판 승부인데 남자가 여자나 객관적 전력에서 일본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다.

여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일본과 12차례 맞대결

을 펼쳤는데 10승2패로 우세다. 2패도 정상적인 패배가 아니었다. 아테네올림픽 직전인 2004년 7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성인 대표팀이 아닌 주니어 대표팀이 나섰고 일본에 23-31로 패했다. 또 작년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예선에서는 교묘하게 휴팀 카자흐스탄 밀어주기에 나선 중동심판의 편파관정에 당하며 29-30, 한 점 차로 졌다.

남자는 올림픽 예선과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대회 예선을 통틀어 1982년 이후 일본에 한번도 지지 않았다.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

임에서 20-21로 진 뒤 한국은 19차례 일본과 대결에서 17승2무로 완벽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무승부는 도하아시안게임 때 26-26으로 비긴 것과 아테네올림픽 예선에서 22-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것이 전부다.

문제는 장소가 일본이라는 점이다. 경기 진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IHF가 남녀 경기 모두 유럽출신 심판을 배정했지만, 무려 1만 명이나 들어가는 도쿄 시내 중심부의 요요기 국립실내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린다는 것이 문제다. 어마어마한 일본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과 싸워야 한다. 비인기 종목이다보니 선수들이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오래됐거나 드물다는 점도 부담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재경기까지 어떤 과정 중동 심판 편파 판정 → 한·일 국제연맹에 조사 촉구 → IHF, 재경기 결정 → 亞연맹은 보이콧

올림픽 금메달 효자종목 핸드볼이 베이징올림픽 개막 6개월여를 앞두고 아시아 예선 재경기(29-30일·일본 도쿄)를 치름으로써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었다.

이번 재경기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을까.

시발점은 기존 예선에서 벌어진 중동 심판의 ‘한국 추기’였다. 아테네올림픽에서 아쉽게 놓친 금

메달을 베이징에서 따내야 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작년 8월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간 여자대표팀은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

일본과 첫 관에서 배정된 중동 심판이 노골적으로 일본 편에서 한국은 7차레나 2번 퇴장을 당하며 노장 오성욱과 허순영이 완전 퇴장당한 끝에 29-30 한 점 차로 패배했다.

9월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에서 열린 남자 예선은

더욱 심했다. AHF는 회장국인 쿠웨이트를 우승시키기 위해 개막전인 한국-쿠웨이트전부터 IHF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일 출신 심판 대신 요르단 심판을 배정했고, 한국은 일본 관중의 공분을 이끌어낼 정도로 과도한 편파관정에 시달리며 20-28로 패한 후 나머지 경기를 모두 이겼지만 IHF 자체 예선 출전권이 주어지는 2위에 머물렀다.

대한핸드볼협회 는 두 차례 예선에서 남녀 모두 당

하자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다행히 일본협회가 손을 내밀었다. 일본은 남녀 모두 올림픽 본선행 희망이 모두 사라진 3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핸드볼연맹(IHF)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진상 조사를 촉구했고 결국 IHF는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어 올해 1월 안에 재경기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동국 5개월만에 골 팀 FA컵 16강행 견인

‘라이언킹’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2007-2008 잉글랜드 FA컵 32강전에서 5개월 만에 짜릿한 골 맛을 봤다.

이동국은 지난 26일 영국 맨스필드 필드 밀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리그2(4부) 하위팀 맨스필드 타운FC와 FA컵 4라운드(32강전) 원정경기에 선발출전, 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골 지역 왼쪽에서 가볍게 오른발 슈트로 결승골을 뽑았다.

이로써 지난해 8월 30일 칼링컵 노샘프턴 타운전(2-0승)에서 잉글랜드 데뷔골을 터트렸던 이동국은 무려 149일 만에 잉글랜드 진출 2호골의 기쁨을 누리 뒤 후반 26분 호삼미도와 교체됐다.

미들즈브러는 이동국의 결승골과 후반 42분 터진 삼대 자책골을 합쳐 2-0 승리를 거두고 FA컵 16강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군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이동국은 맨스필드 타운을 맞아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신임 속에 공격수로 선발출전했고, 마침내 팀 승리를 부르는 결승골로 사령탑의 믿음에 화답했다.

전반 초반부터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동국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전반 17분이였다. 아담 존슨의 오른쪽 코너킥이 골키퍼 편칭에 막혀 튀어나오자 공격에 가담한 수비수 데이비드 휘터가 슈트를 날렸지만 수비수 몸을 맞고 굴절됐다.

순간 골 지역 왼쪽에 포진해있던 이동국은 흘러나온 볼을 오른발 슈트로 맨스필드 타운의 왼쪽 골키퍼를 흔들었다. 기세가 오른 이동국은 전반 37분 제레미 알리아디에르의 오른쪽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다이빙 헤딩슛을 추가골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NFC에서 시작된 축구대표팀 첫 훈련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주전 경쟁 돌입

어제 소집훈련...김남일 주장 맡아

“새롭게 출발하는 대표팀에서 끝까지 살아 남겠습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였다. 달을 올린 허정무호에 승선한 태극전사들은 실렘과 함께 주전 경쟁에서 이겨 대표팀에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표팀은 오는 30일 오후 8시 마포구 삼성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남미 대륙호스 칠레와 친선경기 및 다음달 6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치른다.

먼저 미드필더 이관우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많이 떨린다.



한국 축구대표팀 새 유니폼 27일 경기도 파주 NFC에서 모델들이 2008 베이징올림픽을 비롯해 2010년 월드컵 예선전에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착용하게 될 새 유니폼을 선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골키퍼, 홈, 어웨이 유니폼. /연합뉴스

우즈 “대회 4연패 자신”

18언더파...2위와 8타차
최경주는 2R서 컷 오프
PGA 뷰익인비테이셔널 3R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셔널 4년 연속 우승을 예약했다.

그러나 올 시즌 첫 우즈와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지난 26일 벌어진 2라운드에서 버디는 1개도 잡지 못하고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로 5타를 잃어 버려 1, 2라운드 합계 5오버파로 149타를 쳐 컷 기준 1오버파 145타를 넘지 못해 3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했다.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2·7천568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없이 6개의 버디를 쓸어담은 우즈는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로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18언더파 198타는 대회 54승 최소타 타이기적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혼자 3라운드에 나선 박진(31·던롭스릭스)은 이븐파 72타를 쳐 공동 42위(이븐파 216타)에 머물렀다.

하지만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과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1오버파 145타를 쳐 컷 기준을 통과하고도 3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하게 돼 새 규정의 희생자가 됐다.

PGA 투어는 경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올 시즌부터 3.4라운드 출전 선수를 최대 78명으로 제한했다. 78명이 넘는 경우 공동 70위 바로 앞 순위 선수들만 3.4라운드에 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샤라포바 대회 첫 정상

동갑 이바노비치 2-0 제압
통산 세번째 메이저 우승
호주오픈테니스



‘괴성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세계랭킹 5위·러시아·사진)가 총상금 171억원이 걸린 호주오픈테니스대회에서 통산 세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샤라포바는 지난 26일 호주 멜버른 파크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끝난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스물한살 동갑내기 아나 이바노비치(3위·세르비아)를 2-0(7-5 6-3)으로 물리치고 이 대회 첫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28만달러.

2004년 최고권위 월드컵 여왕에 올랐고 2006년 US오픈 우승에 이어 세 번째 메이저대회 제패.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서리나 윌리엄스(7위·미국)의 파위에 막혀

우승 문턱에서 주저 않았던 샤라포바는 2년 만에 우승 갈증을 풀었다. 1회전부터 결승까지 7경기 무실세트로 일군 완벽한 우승이었다.

샤라포바는 4-5로 뒤지던 1세트에서 세게임을 연속으로 따내 승기를 잡았고 2세트에서도 3-3이던 일곱번째 이바노비치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승부를 마무리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 | | |
|-----|-------|-------|
| 골프장 | 회원권 | 판매가 |
| 경주 | 3,450 | 1,700 |
| 남양주 | 4,400 | 1,900 |
| 승주 | 8,200 | 2,100 |

상담 전화: (062)351-0095